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김승태 성도(카자흐스탄 목장)
2. 11월 추천도서입니다.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감사의 7가지 언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상 3권입니다.
3. 이번 주 토요일(11/16) 청소년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이며, 다음 주일(11/17) 식사담당은 로댐 목장(정진숙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공지사항입니다. 안수집사 신임투표를 12월 8일 주일낮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이상 3명입니다.
6. 오늘 오후찬양예배 후, 2020년 사업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신재준 집사
예배기도(오후)	정진숙 권사	황희용 권사	유숙정 권사	오효근 권사
주일식사담당	늬바목장 (유숙정 권사)	로댐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카자흐목장 (11/16)	캄보디아목장 (11/23)	청년부목장 (11/30)	키르키스목장 (12/7)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나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80번(고후 4:7-11)	다같이
*경배찬송 43장(통 57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4장 (통 102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동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눅 22:39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나에게 주님의 뜻이란'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
단
의
말
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연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솔리데오 찬양팀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214장(통 349장)	다같이
기도	정진숙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출 7:1-7	인도자
말씀선포 '너, 하나님의 사람아'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57장(통 397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21:15-25 '회복의 기도를 붙들라'(3)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과학'(105)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 후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변함없이

입동(立冬)이다.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 이 무렵이면 밤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하며, 동면하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숨는다. 입동 날 추우면 그 해 겨울은 몹시 춥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한 겨울 삭풍의 예방주사를 맞은 날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는 모든 사물을 마비시키듯 그렇게 따끔하게 찾아왔다. 지인들이 하나같이 외친다. "감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지 않아서인지 감기가 슬며시 3종 세트로 찾아왔다. 편도염, 잦은 기침, 거기다 주체할 수 없는 콧물은 괜히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피곤한 몸을 이곤 채, 찬 새벽바람을 맞으며 내려선 성전 앞에는 살얼음 꽃이 피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시작하며 수줍은 어린 아이마냥 살며시 열어 재깰 성전 문 사이로 차디찬 찬바람이 엄습해온다.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온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낯두리를 해본다. 추위 한 번 찾아왔을 뿐인데, 일순간 모든 것이 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어쩌면 항상 그대로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변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든다.

늦가를 정취를 맘껏 뽐냈던 성전 앞 정문 곁 국화들이 갑작스런 추위에 생명을 다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처음에는 성전 안 강단에서 호기롭게 자신의 외모와 향기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 입구에 자신의 자리를 틀었다. 나중에는 성전 앞 정문 곁에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일순 더 이상 꽃과 향기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못내 서운하다. 10년, 20년이나 되는 사람들 간의 교류라면 그것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닐 게다. 나에게도 10년, 혹은 20년 넘게 사귀는 친구 같은 이들이 있기에. 그런 그 친구들과의 우정과 인연보다는 턱도 없이 짧지만, 나는 사람으로 너는 꽃으로 우리가 만나서 보낸 시간이 한 달 남짓이기에 떠나 보내기가 여간 서운한 게 아니다. 온 교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국화의 단아함과 향긋한 꽃내음을 좋아했기에.

마지막 꽃잎을 떨군 채, 그래도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국화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주변을 돌아다보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늘 빛깔이 그러하며, 산등성이 곱게 물든 단풍이 그러하며, 차디찬 새벽 공기가 그러하며, 추위에 움츠린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러하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근본이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려 한 국화처럼 말이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차디찬 삭풍이 이는 겨울이 오고서야 겨울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어리석음은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 징조가 보이면 바로 징조 이후의 상황을 바로 느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다. 누군들 시련이 없을까 보냐. 내가 느끼는 시린 바람을 통해서도 근본이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고 있을 뿐이기에.

Written by 허영진